

충분합니까?

Am I Enough?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당신이 빈자리에 아무나 채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마도 우리 사역에 자매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필요에 과민반응 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좀 더 심오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저를 보고 있는 건가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냥 필요한 역할만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발견한 몇년 동안 반복된 패턴중 하나는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좋은 답변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경험했던 내재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충분한가?”입니다. 팀원을 충원하거나, 후원을 요청하거나,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을 제공해야 할때, 우리는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외부로 통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강점, 약점, 또는 해결책을 위한 에너지를 찾으려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답은 “아니요, 당신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충분하도록 의도된적이 없습니다.” 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안된 기회를 거절하거나 영향력에 대한 열망을 무시한다는 등 우리가 부적절한 이유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 제가 누구인가요? 제가 바로 사람을 죽여서 두려움으로 도망간 자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모세는 보내심을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이의를 제기했고 하나님은 이에 답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하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고 모세는 그의 손에서 문둥병이나고 다시 깨끗해진것을 볼것이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저는 이 내용이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모세는 우리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를 하나님께 크게, 또는 은밀히 여쭙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선을 외부로 돌린다면,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정할 것입니다.

모세의 스토리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과업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노라... 내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 볼 수 있는 관점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기에 바로의 집안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가 레위의 자손이라는 그의 유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부르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가족, 교육, 경험, 열정과 훈련이 하나님의 준비요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꺼이하고자 하는 마음과 신실함에 비하면 부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역에 참여하고 있거나 주도하고 있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들

1.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분은 여전히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 분이시며,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분이시다.
2.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어느곳으로 가야할지를 알려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3.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신다.

리더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안도감이 생깁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어떤 리더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중 앞에서 서기에 부족한 리더라 할지라도, 리더로서 믿음으로 걷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망스러운 이야기 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신념을 가지고 말할 때,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감이 넘쳤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 반응을 해야 할 때의 내 목소리, 손, 무릎이 떨릴 때면, 제가 남들보다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기에 그런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더 투명해지고, 덜 경계하면, 주로 큰 사역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 사역으로 가려졌던 스토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랐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전도할 때, 제자화 사역을 할 때, 팀을 인도할 때, 영적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는 먼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요점은 우리의 자원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했던 방향설정, 공급, 사랑, 열매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지침대로만 따라도 되는 라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훈련도 믿음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가고 깨진 항아리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그분의 충분함을 위한 공간이 되며, 그로인한 영광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